

## 불교 공동체운동은 '미래세대 동력'

### 왜 공동체를 주목하는가

현재 한국사회는 공동체 운동이 붐이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표방한 협동조합들이 지난해 여럿 출범을 했다. 지난해 주요 계간지들의 의제와 담론을 연결했던 말들은 '연대'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이다.

실제 '역사비평'은 상호부조와 연대를 열쇠말로 뽑았고, '황해문화'는 시민운동, 격월간 '녹색평론'(3~4월호)은 농어촌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주요 기획으로 다뤘다.

이 같은 바탕에는 2012년 12월 통과된 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부터 강조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인기다. 실제로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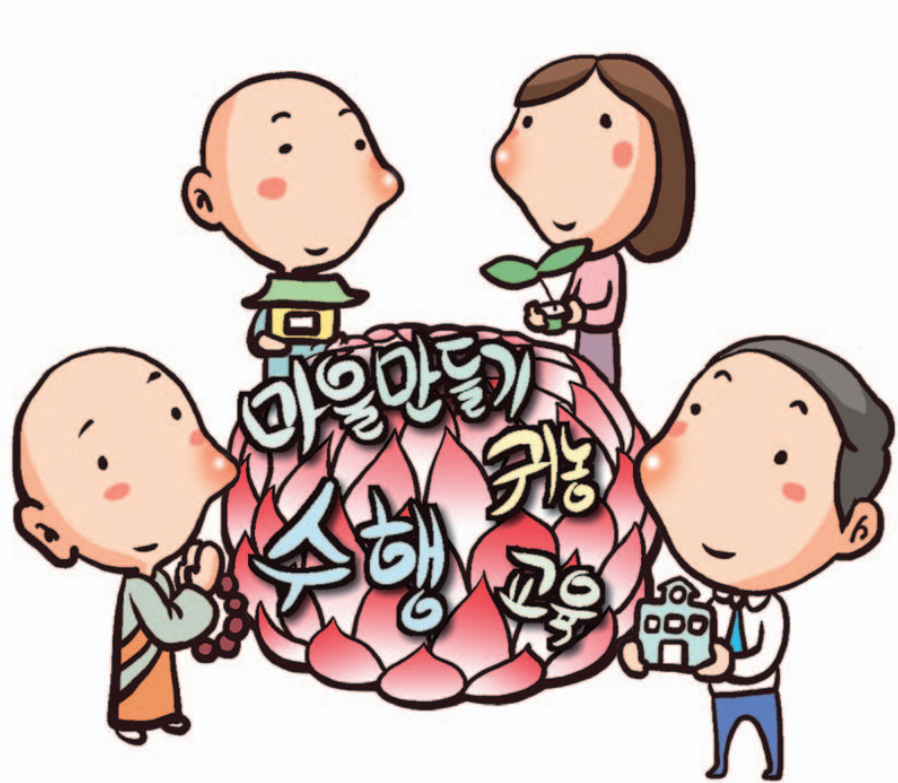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해 개인들의 결합된 단체를 의미하는 결사는 역사 속에 불교가 권력과 유착하여 중생을 외면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마다 분명히 나타나곤 했다.

최초의 결사는 중국 동진 혜원 스님의 백련결사였으며, 한국의 근현대에는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한 정혜결사가 있었다. 최근에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자성과쇄신 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불교적 공동체의 지향점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현대적 공동체 운동은 시작 단계이다. 종단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련의 불교운동들이 불교와 사회개혁에서 문명적 대안의 그 궤적을 넓힌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며, 수행을 중심으로 모여 영역을 확장한 정토회도 눈에 띄는 성공 사례이다.

특히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마을과 지역 그리고 사

### 불교는 공동체적 역사 산물

### 향도·결사 등 공동체 존재

### 본래 정신 회복이 급선무

참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찰이 있는 만큼 사찰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 어떤 생산 방식을 가질 것인지, 마을 간 연대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사찰과 마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 같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와 리더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 생협 이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나 사회운동은 이미 선점 조직들이 많다. 하지만 생명 평화, 공동체 등은 대부분 출발선 상에서 있으며, 불교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진다"면서 "향후에는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운동이 대안 운동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운동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한국 대표 마을 공동체 성미산을 가다

## 사람들 스스로 가꾼 행복한 마을

성미산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인근을 이룬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정신을 배우겠다고 벤치마킹하러 들르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따로 마을이 없다. 행정구역상 경계도 불분명할 뿐더러 언뜻 보면 다른 동네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을을 모른다고 하는 주변 사람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주민수도 구역도 불분명한 곳. 하지만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기업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체 운동의 '조상' 격이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해 보자고 모여 1994년 문을 열게 된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현재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의 시초였다. 그 후 낯은어린이집, 성미산어린이집 등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성미산마을에는 현재 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공동육아에서 시작한 운동이 자연스레 대안학교 등 교육으로 외연을 넓혔고 반찬가게, 생협, 식당, 마을극장 등으로 규모를 키우며 문화경제 생활형 공동체로 자리잡아갔다. 8가구 정도가 모여사는 소행주(소동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라는 공동주택도 생겨났다. 집값 부담을 줄이고 이웃끼리 오순도순 모여 살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구성된 것이다.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거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마을의 일상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 콘

적은 아니다. 결산을 0에 맞추고 1년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전부다.

성미산마을이 20년이 되도록 왜해되지 않고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타트업에 있다. 각 단위 운영은 개별 운영위원회가 맡지만 1년마다 운영진들이 바뀌고 주민들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사람과 마을이라는 주재자 역할을 하는 단위가 운영조직간 소통과 외부와의 연결을 담당할 뿐이다.

사람과 마을의 운영위원장인 김우 씨는 성미산마을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력을 배제하고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다 보니 공의를 모은 과정 중에 크고 작은 갈등

### 육아 시작해 20년 간 진화

### 이제 주거·교육·문화로 확대

### 구성원 수평적 관계가 '해답'

이 일어나지만 구성원들은 이를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초중고 12년제로 운영되는 성미산학교는 이러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킨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협동을 몸소 익힌다.

스스로 진화해 온 성미산마을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만들어진 좋은날 협동조합은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노동력을 순환시킨다. 주민들이 만든 비누는 두레생협연합회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며 사회로 점차 발을 넓혀가고 있다. 배현진 기자



2011년 성미산 마을 축제 모습. 한국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 공동체로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사진제공=김명집>

### 협동조합법, 2012년 제정

### 서울시 마을 만들기 '인기'

### '공동체', 트렌드로 부상 중

고 있고, 이미 다른 지방 도시들도 서울시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목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 이 시대의 새 화두 '공동체'

근현대적 공동체 운동의 태동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787년 시작된 셰이커공동체를 비롯해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완전사회를 꿈꾸며 만든 뉴하모니공동체, 후터파공동체, 드로블파공동체 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에 힘입어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다만 도피 형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운 형태여서 오래 지속된 것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3만여 개의 공동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가장 큰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인터넷사이트 'www.ic.org'에는 2011년 2월 현재 미국에만 1,827개의 공동체, 미국 이외의 나라는 795개 등 총 3,600여개의 공동체사이트가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회가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경쟁으로 내몰려 파편화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유정길 에코붓다 이사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라고 생각하면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정글의 법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태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러한 법칙을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자연계는 상호의존, 상호보완, 상호부조하며 협력하는 종들만이 진화에서 오래 살아 남았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고 곧 협력적 공동체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기도 한다. 실제 하이데거는 현대적 생태 위기는 인간 관계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위기 극복의 여부는 관계 회복 가능성에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회복이 그 핵심 과제이며 여기에 몸소 뛰어들어 역량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상형 인간"이라고 규정했다.

### 공동체적 가치 지닌 불교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대안 문명으로서 공동체 운동을 실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안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신라시대 이후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결사조직이다. 이곳은 길흉경조, 재난구조 등의 역할도 하면서 이후 점차 마을공동체로 변화된 대표적인 불교공동체이다.

신라후기와 고려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불상, 종, 석탑, 사찰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적인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국가가 위급할 때에는 예비군 기능을 했다고 전해진다.

불교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체로는 결사를 들 수 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 속리산 法住寺

조 실	천 호	월 서
회 주	미 롱	월 탄
주 지		현 조
관 장		성 천
수련원장		현 진

총무국장 보광	교무국장 각주	선학승가대학원장 청 원
재무국장 정덕	사회국장 원철	승가대학장 진 원
포교국장 도암	연수국장 보관	보은포교원 현 지
도 감 지정	포교차장 무경	교구신도회장 최윤철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번지 ☎ 043)543-3615 www.beopjusa.or.kr